

건축공간연구원

연구과제
소개

구분	과제명	과제책임
수시 과제	감염병 확산 시나리오별 요양병원 시설계획 대응 전략	김꽃송이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존·활용을 위한 의사결정체계 구축 연구	권영란
	건축물 활용도 제고를 위한 복수 용도 인정 기준 개선 방안 연구	김은희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설계 도입 및 제도화 연구	이종민

수시과제

① 감염병 확산 시나리오별 요양병원
시설계획 대응 전략

요양병원에서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면서 건축적 지원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원내감염 예방 및 대응은 운영관리제도(Software)와 시설계획기준(Hardware)을 통해 실현 가능한데, 운영관리 측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등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 내 감염 확진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에 감염관리지침이 준수되지 않았을 때에 대비하여 시설계획 측면에서의 지원방안 마련이 촉구되고 있으며, 국외를 중심으로 감염확산 원인 및 시설 특성 파악을 통해 감염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사회적 관심도 증대하고 있다. 감염병은 항상 발생하는 현상은 아니며 감염확산 원인 및 시설현황이 다양하므로, 감염확산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설 계획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요양병원 감염관리계획 가이드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국내 요양병원의 감염확산 원인 및 시설대응 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시설의 개선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원내감염 확산은 대부분 '간병인'으로부터 야기되며, 다중이용시설에 위치한 중소규모의 시설, 15년 이상의 노후도를 가진 요양병원이 감염관리에 취약한 유형으로 도출되었다. 감염관리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공간격리계획, 밀집도, 종사자(의료진, 간병인 등)-환자 동선 격리'에 주안점을 두고 시설계획이 이뤄져야 하며, 감염확산이 우려되는 공간 및 원인을 고려할 때 개선이 필요한 시설계획요소로 '병실, 층별 전실, 병동, 공용공간, 물리치료실, 공조설비'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공간별 개선방향은 감염병 확산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평상시'와 '감염 확진자 발생시'로 구분하여 유연한 시설계획으로 제시하되, '기존 시설/신축시설/모든 시설(기존+신축)'에 적용 가능한 계획요소를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정책적 지원방향으

로는 '의료기관개설심의위원회 적용단계 개선'과 '기존 요양병원 감염관리계획 개선을 위한 지원제도 마련'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 연구결과로 제안한 감염병 확산 시 나리오별 시설계획은 향후 구체화된 건축기준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요양병원 감염관리계획 가이드 개발이 요구된다.

김꽃송이

②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을 위한 의사결정체계 구축 연구

역사문화자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일제강점기뿐만 아니라 6·25와 군부 독재정권, 재난·재해 등 대중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근현대 건축물이 역사문화자원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네거티브 헤리티지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네거티브 헤리티지는 대중에게 '철거해야 하는 잔재'로 인식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네거티브 헤리티지가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의 경험'과 '불편한 기억'을 바탕으로 하는 유산이라는 특징은 해당 유산과 관련 있는 사건 당사자가 동시대에 존재하고 있거나, 직·간접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는 대중이 존재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네거티브 헤리티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연구는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을 위해 기존 의사결정체계와는 다른 별도의 방법론 마련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의사결정체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이 연구는 네거티브 헤리티지의 개념과 특징을 통하여 포지티브 헤리티지와는 차별화된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기존 의사결정체계로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사업을 추진할 경우 발생하는 갈등양상과 문제점 및 한계를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을 위한 의

사결정체계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을 위한 의사결정체계의 목표는 해당 유산이 보전·활용되었는지 그 결과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누구와 함께 보전·활용을 논의하였는지 그 과정을 고민하는 것이다.

권영란

③ 건축물 활용도 제고를 위한 복수 용도 인정 기준 개선 방안 연구

다중주택·공유주택 등 새로운 형태의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거점으로 다양한 실내놀이·체육서비스 시설이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사업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난 1월 공고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는 새로운 건축물 용도로 '기숙사형 임대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VR시뮬레이터 제공업소', '전기충전소' 등이 추가되는 등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한 건축물 용도기준 개정도 가시화되고 있다.

한편 현행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목표로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가 세부 전략으로 포함되어 있고, 규제 샌드박스 도입과 건축행정 규제혁신 등 부처별 실행방안들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국민 생활안정을 위한 주택공급확대 정책(2021.2.4.)의 지역지구 규제 완화 및 건축물 용도의 탄력적 운용도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건축법」 제19조의 2에 명시된 '건축물의 복수 용도 인정'은 하나의 공간(실)을 2개 이상의 용도(종목)로 지정할 수 있게 한 규정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허용된 용도 범위에서 언제든지 합법적으로 용도를 바꾸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신설된 시점의 「건축법」 개정안(2016.1.19.) 설명에 따르면, 복수용도는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잠재된 건축 투자수요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규정의 취지나 효력에도 불구하고 2016년 이후 현재까지 전국 지자체

체 허가 건수는 20건에도 못 미친다.

이에 이 연구는 현행 복수용도 인정 기준의 문제점과 원인을 파악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요구 등을 반영하여 민생·산업 활력 제고라는 제정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최근 건축물 용도에 관한 정책이슈와 민원수요를 고려하여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할 필요가 있는 대상을 정하고 해당 용도의 건축물 계획기준 완화 등 합리적인 법규정 적용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은희

④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설계 도입 및 제도화 연구

최근 연이은 건축물 화재사고로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내화피복 두께 기준, 방화구획 설치 면적 기준 등 '시방서 중심의 사양 설계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양 설계기준은 화재안전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일반론적인 기준으로, 과다설계(경제성) 또는 과소설계(안전성)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재실자 밀도에 따라 화재의 정확한 거동을 예측하고 대비책을 마련하거나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건축시장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제약이 따르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성능 설계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화재발생 예방, 초기진화, 화재확산 및 전파 억제, 연기 전파 차단 및 신속한 배출, 피난시간 확보 등 실질적인 화재안전성능 확보를 위해서는 사양 설계기준뿐만 아니라 성능 설계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건축물의 실질적인 화재안전성능 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의 R&D사업(건축물의 성능 위주 화재안전 설계 기준 및 화재안전성 향상 기술 개발, 2015.7.~2020.10.)을 추진하여 2020년에 화재안전 성능설계의 기술·공학적인 기준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기술·공학적인 기준이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법·제도로 도입하기에는 행정절차 및 세부기준, 적용범위, 건축물 생애주기를 고

려한 관리방안, 새로운 제도에 대한 국민수용성, 유관 분야 법률과의 정합성 등 검토될 부분이 아직 많이 남은 상태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화재안전 성능설계의 적용 범위, 성능설계를 위한 소요비용 추정, 성능설계 절차 마련, 성능설계 적용 건축물의 관리방안 등을 마련하는 한편 화재안전 성능설계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안) 등 제도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건축물의 실질적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여 국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건축시장의 발전 또한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민

2021 제1차 AURI 건축도시포럼 “주택정책”에서 “주거문화정책”으로”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4월 23일(금) 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한 온라인 생중계로 '2021 제1차 AURI 건축도시포럼'을 개최하였다.

'건축도시포럼'은 건축도시공간 분야의 이해를 높이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분야별 현안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논의할 수 있는 발전적 담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행사이다. 이번 포럼은 “주택정책”에서 “주거문화정책”으로”를 주제로, 물리적 건물을 의미하는 주택(house)에서 문화적·사회적 측면을 포함하는 개념인 주거 문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을 진단하고, 삶의 안전선으로서의 주거복지와 삶의 의미를 담아내는 주거문화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먼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부동산 정책에서 주거 정책으로의 전환'을 주제로 우리나라 주택 문제의 역사를 짚으며, 정책 실행 방향을 발표하였다. 김영욱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의 자화상, 주거공간'을 통해 공간 이상의 의미를 갖는 주거공간이 우리 생활과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서수정 건축공간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인구감소시대의 주거문화와 삶 중심의 주거정책 방향'을 주제로, 뉴노멀 시대를 맞아 새로운 주거에 대한 방향과 대안을 제안하였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규인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조항만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손동필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 남철관 (사)나눔과미래 지역활성화국 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앞으로의 주거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2021 AURI 경관포럼 ‘국토경관 관리의 성찰과 전망’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지난 5월 6일(목) 세종시 샘커뮤니케이션스에서 ‘2021 AURI 경관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국토경관 관리의 성찰과 전망’이라는 주제 아래 향후 우리나라 경관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자리로, ‘경관’이 정책적으로 다룰 수 있고 다뤄야 하는 것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제자·토론자·행사관계자만 현장에 참석하였으며,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하였다.

기조연설에서 정영선 조경설계 서안(주) 대표이사는 ‘우리나라 경관관리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풍부한 경관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의 경관관리를 통해 지속성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전하였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김기호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는 ‘소리 없는 공중전: 도시와 자연경

관’을 통해 도시구조적 경관관리를 위한 컨센서스 마련을 강조하였다. 또 강동진 경성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 역사경관의 보전, 그 본질적인 접근’을 주제로, 역사경관의 보편화 및 일상화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위재송 서경대학교 교수는 ‘도시개발에서의 경관관리에 대한 반성과 가치 모색’을 통해 개발사업 과정에서 가치 있는 경관관리를 위한 실행방안을 제안하였다.

종합토론에서는 심경미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이 진행을 맡은 가운데 김태경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과장, 서영애 기술사사무소 이주 소장, 양승우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주신하 서울여자대학교 교수가 참석해 경관자원조사 및 경관기록 등의 중요성과 시민참여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1
마을재생포럼
'인구감소 시대
지방도시의
지속가능한
주거지 재생'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지난 6월 11일(금) 대회의실에서 '2021 AURI 마을재생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었다.

'인구감소 시대 지방도시의 지속가능한 주거지 재생'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은 초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도시에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주거지 재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지방도시의 주거지 재생 모델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실험을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와 함께하였으며, 지속가능한 주거지 재생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고자 건축도시·사회학·인구학 분야의 전문가 주제 발표 및 토론으로 구성하였다.

주제발표에서는 서수정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인구감소 시대 지방도시의 지속가능한 주거지재생'에 대해, 조준배 전주시 지역재생총괄계획가가 '전주시 주거지재생 시도와 한계'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어 박소현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는 김승수 전주시장, 남철관(사)나눔과미래 국장,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조희정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논의를 펼쳤다.

건축공간연구원-대한건축학회 공동 학술 심포지엄

‘건축자산 및 역사문화자원 관련 제도와 발전 방향 심포지엄’ 개최

건축공간연구원과 대한건축학회는 지난 4월 22일(목)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건축자산 및 역사문화자원 관련 제도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공동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건축자산과 역사문화자원의 보존 및 활용에 대한 정책 교류의 장으로 마련되었으며, 관련 전문가와 관계자 외에도 건축자산 및 역사문화자원에 관심 있는 일반인의 참여를 위해 온라인 생중계를 함께 진행하였다.

1부 주제발표에서는 김기수 동아대학교 교수가 ‘근대기 역사문화자원의 보존 및 활용제도 고찰’을, 염철호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을, 한동수 한양대학

교 교수가 ‘역사문화자산 관련 DB 구축과 활용’을 각각 발표하였다.

2부 종합토론에서는 김종헌 배재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정문희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사무관, 송석기 군산대학교 교수, 안창모 경기대학교 교수, 이경아 한국전문대학대학교 교수, 이규철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석하여 ▲건축자산 및 역사문화자원의 용어 혼용 ▲부처 간 DB(기초조사 방법, 조사항목, 가치판단기준 등) 공유와 업무분장의 필요성 ▲건축자산 및 역사문화자원의 가치 보전을 위한 내진보강 이슈 해결의 필요성 등을 논의하였다.



2021 제1회 근대도시건축연구회
-건축공간연구원 공동 학술 세미나
'최근 반환된 한반도 내 미군기지 활용방안' 개최

건축공간연구원과 근대도시건축연구회가 지난 5월 22일(토) 제1회 공동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었다.

'최근 반환된 한반도 내 미군기지 활용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반환되었거나 반환 예정인 미군기지 현황을 살펴보고, 근대건축자산으로서 미군기지의 위상을 진단하여 그 활용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날 기조강연에서 안창모 근대도시건축연구회 회장(경기대 교수)은 '미군의 주둔과 미군기지 그리고 건축유산'을 통해 "미군기지의 역사적·사회적 가치를 공유하고, 역사적 교훈으로 확산시키는 보존과 활용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주제발표로는 이은경 경기도 DMZ정책과 주무관·예술감독의 'DMZ 일원 캠프그리브스의 반환 및 예술적 활용'을 시작으로, 김기수 동아대학교 교수의 '캠프 하리아리 반환 및 활용에 관한 소고', 이연경 인천대학교 지역인문정보융합연구소 학술연구교수의 '무기 공장에서 빵 공장으로: 부평 캠프 마켓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이어졌다.

종합토론에서는 안창모 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조경진 서울대학교 교수, 함은아 이로재 소장, 김백영 서울대학교 교수가 참석하여 미군기지의 유형별 분류의 필요성 등 풍성한 논의를 이끌어냈다.

NEWS

2021년 제1회
근대도시건축연구회-건축공간연구원 공동 학술 세미나

최근 반환된 한반도 내 미군기지 활용 방안

2021. 5. 22*
14:00-17:00

zoom 온라인 세미나
회의 URL: <https://zoom.us/j/97930695517>
회의 ID: 979 3069 5517

14:00-14:20	개회
주최	이창모 근대도시건축연구회 회장, 한국건축문화재단 대표이사
주관	최근 반환예정거나 반환 예정인 한반도 내 미군기지 현황 안창모 근대도시건축연구회 회장, 김기수 교수
14:20-15:35	발표
주최	이은경 근대도시건축연구회 주무관, 건축문화재연구소 단장
발표1	DMZ지역 캠프 그리브스의 반환 및 예술적 활용 이은경 경기도 DMZ정책과 주무관/예술감독
주최	캠프 하리아리의 반환 및 활용에 관한 소고 김기수 동아대학교 교수
발표2	무기 공장에서 빵 공장으로: 부평 캠프 마켓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이연경 인천대학교 지역인문정보융합연구소 학술연구교수
15:35-16:50	질문
15:50-17:00	종합토론
좌장	안창모 근대도시건축연구회 회장, 경기대 학교 교수
주최	조경진 서울대학교 교수
참석	함은아 이로재 소장 김백영 서울대학교 교수

주최 | 근대도시건축연구회 (a.u.r.) 건축문화재단 주관 | 근대도시건축연구회, 건축문화재연구소(건축공간연구원)

‘제2회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건축공간연구원과 국토교통부는 7월 12일(월)부터 10월 15일(금)까지 ‘제2회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정책입안자와 국민이 함께 건축에 대한 새로운 정책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되었으며, 공모전 작품을 통해 한국 건축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생각과 비전을 공유하고자 한다.

공모전은 건축정책 아이디어 플랫폼 (<http://idea.aurum.re.kr>)을 통해 전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영상·포스터·에세이 등 다양한 형식으로 우리 건축과 공간환경의 현재를

진단해 볼 수 있는 내용 혹은 미래 건축과 환경을 위한 새로운 시도나 실천방안이 담긴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출품된 작품은 창의성·필요성·작품성·효과성의 기준을 바탕으로 건축정책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며, 대상·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 등 모두 8개의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개최된 제1회 공모전에는 총 51개의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미래 건축에 제안하고 싶은 아이디어를 영상물로 제작한 ‘소소한 변화부터 차곡차곡!’이 대상을 받은 바 있다.

시상 내역

구분	건수	포상	포상종류
대상	1	상금 300만 원 및 상장	국가건축정책위원대상
최우수상	1	상금 200만 원 및 상장	국토교통부장관상
우수상	1	상금 100만 원 및 상장	건축공간연구원장상
장려상	5	상금 50만 원 및 상장	대한건축학회·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한국여성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회장상



제1회 석·박사 과정 연구지원 프로그램 '2021 AURI 아카데미' 운영

건축공간연구원은 건축·도시 분야의 대표 연구기관으로서 연구성과 확산 및 차세대 연구인력 양성을 통한 기관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제1회 석·박사 과정 연구지원 프로그램 '2021 AURI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건축·도시·조경 분야 석·박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5월 31일(월)부터 11월 26일(금)까지 약 6개월 동안 운영되며, 건축공간연구원에서 수행하는 12개의 연구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수행과 논문작성 지원 등 멘토링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연구 분야

공공건축, 건축서비스산업, 마을재생, 경관, 보행환경, 범죄예방환경, 고령친화, 건축·도시 빅데이터, 기후변화 대응 녹색건축·도시, 스마트도시, 한옥, 건축자산

이에 연구계획서 평가와 면접 등을 통해 지원자(멘티)를 선발하며, 지원자가 희망하는 멘토 또는 연구 분야가 유사한 연구진을 멘토로 매칭하여 진행된다. 또 월 1~2회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연구수행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자료실 등 연구원 시설 이용과 연구원 보유 빅데이터 제공, 논문 투고료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 5월 말 지원자 선발을 마쳤으며,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12월 초에는 공동논문·학위논문·워크페이퍼·활동실적보고서 등을 토대로 한 성과발표회가 예정되어 있다. 한편 지원자 전원에게는 AURI 아카데미 수료증이 발급된다.

(auri) 건축공간연구원
AURI & AURI Research Center

제1회
석·박사과정 연구지원 프로그램
2021 AURI 아카데미

개요

- 건축·도시·조경 분야 석·박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5월 31일부터 11월 26일까지 약 6개월 동안 운영되며, 건축공간연구원에서 수행하는 12개의 연구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수행과 논문작성 지원 등 멘토링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선발요건

대상분야: 12개 분야(건축·도시·조경 분야) 중 1개 분야 이상 선택가능
 모집분야: 건축·도시·조경 분야 석·박사 대학원생(국내·외) 중 석·박사 학위 취득 후 1년 이내 박사 학위 취득 예정인 자
 지원방법: 온라인(www.auri.ac.kr) 또는 전화(02-2212-1111)로 접수

대상분야

1. 공공건축
2. 건축서비스산업
3. 마을재생
4. 경관·보행환경
5. 범죄예방환경
6. 고령친화
7. 건축·도시 빅데이터
8. 기후변화 대응 녹색건축·도시
9. 스마트도시
10. 한옥
11. 건축자산

문의처
AURI 연구지원팀: 02-2212-1111 (내선 4130) | e-mail: auri@auri.ac.kr

접수기간
2021.05.31 (월) ~ 11.26 (금) 09:00 ~ 18:00

지원서류
1. 지원서
2. 학위증 사본
3. 연구계획서
4. 자기소개서
5. 연구실적
6. 기타 관련 서류

지원처
AURI 연구지원팀: 02-2212-1111 (내선 4130) | e-mail: auri@auri.ac.kr

NEWS

‘2021 아시아
도시경관상
(Asian
Townscape
Awards)’
후보 접수



건축공간연구원은 유엔해비타트 후쿠오카본부, 후쿠오카 아시아도시연구소, 아시아 해비타트협회, 아시아 경관디자인학회와 함께 ‘2021 아시아 도시경관상’을 공동 주최한다. 아시아 도시경관상은 아시아 사람들의 행복한 생활환경을 구축해 가는 것을 목적으로, 다른 도시의 모범이 되며 성과를 이룬 도시·지역·사업 등에 시상한다.

아시아 각국 지역 지방자치단체, NGO와 시민단체, 학술 연구기관, 도시계획·건축설계·경관설계 및 기획 관련 기업 등으로부터 참가 신청을 받아 ▲도시·지역 ▲도시와 지역에 크게 공헌한 대규모 사업 ▲자연·도시 환경의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사업 ▲지역 발전에 기여한 건조물·프로젝트 ▲경관 발전에 공헌한 단체 등에 시상한다.

이에 지난 6월 30일(수) 신청기관 접수를 마쳤으며, 7~8월 서면 및 현장심사로 진행되는 예비(국내)심사를 거쳐 최종심사에 제출할 작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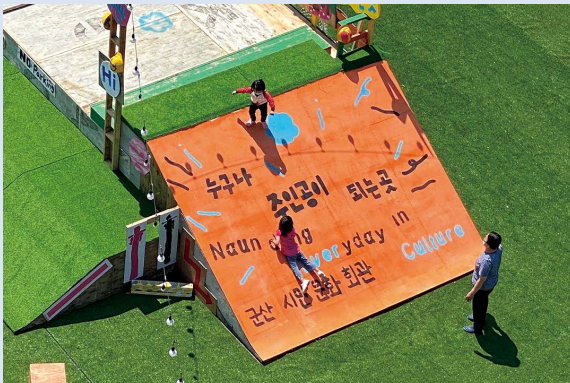
선정한다. 이후 각국 및 지역 심사위원으로부터 서면심사를 받는 최종심사를 통해 11월경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시아도시경관상의 평가기준

1. 친환경적이며 공존하는 것인가?
2. 안전하고 이용자에게 편리하며 지속성이 있는가?
3. 지역 문화와 역사를 존중하고 있는가?
4. 예술성이 높은가?
5. 지역의 발전에 공헌하고 타 도시의 모범이 되는가?

한편 지난해 아시아 도시경관상 수상작에는 총 11개 본상과 2개의 심사위원상이 각각 선정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 강동구와 성동구 그리고 울산시가 본상의 영예를 안았다.

군산시민문화회관 재생과정 공유행사 '거인의 초대' 개최



건축공간연구원과 군산시는 지난 5월 19일(수)부터 23일(일)까지 5일간 군산시민문화회관에서 시민문화회관 재생과정을 공유하는 '거인의 초대' 행사를 개최하였다. 2013년 폐관된 시민문화회관의 재생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건축공간연구원과 군산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문화회관을 '거인'으로 명명하고 군산시민들을 초대하여 재생 프로젝트의 방향을 알리고 비전을 공유하고자 하였다.

행사는 시민문화회관의 재생과정을 알리는 전시와 투어, 공간 재활용 실험을 위한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전시회는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진이 재생 과정에서 진행해 온 주민 인터뷰를 비롯해 시민문화회관의 역사 관련 자료 수집 등 지역조사의 결과물을 선보였으며, 연구진과 함께 전시회를 돌아보는 도슨트 투어 프로그램도 운영하였다.

행사 기간 중 파크렛(Parklet, 노상주차장을 활용한 소규모 공원)으로 변신한 시민문화회관 주차장과 광장에서 진행된 야외 프로그램은 폐자재를 활용한 의자 만들기 대회, 종이비행기 날리기 대회, 재활 요가 클래스, 플리마켓 등 즐길 거리와 댄스공연·노래자랑·영화상영회 등 볼거리로 구성되었다.